

2024 -2 TU Graz 교환학생 활동보고서

건축학과 윤지영

보고서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중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부모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국제협력실과 공대교육연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며 선배들의 활동보고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제 보고서가 후배들의 교환학생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지원 준비 과정과 교환학생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교환학생 참가 동기

영어는 제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대학에 가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 것이라 막연히 기대했지만 기초영어와 대학영어 1을 수강해도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접한 미국 영어는 너무 빠르게 느껴졌고 영국 영어는 억양 때문에 아예 알아듣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용 비율이 높은 유럽 국가로 교환학생을 가야겠다고 결정했고 여러 대학 중에 오스트리아의 TU GRAZ를 선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이지만 영어 사용 비율이 매우 높고 실제 생활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2. 출국 전

비자, 항공권, 숙소사 등 중요한 서류들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교와 교환국에서 타임라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기 때문에 빈틈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한 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가서 ÖGK라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서, 여행자 보험은 그 외의 기간을 커버하는 상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 실수로 보험이 비는 기간이 생겨서 보충 자료를 제출하여야 했는데, 추가 자료는 메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충분한 여행자보험을 새로 가입하여 빨리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 ESN 신청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ESN(Erasmus Student Network)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SN에서는 현지에서 다양한 여행 및 행사 주최, 버디 프로그램(Buddy Program), 픽업 서비스(Pick-up Service)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픽업 서비스는 숙소사 열쇠를 받는 사무실 운영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미리 기숙사 열쇠를 받아 역에서 맞이해 주기 때문에 기숙사까지 찾아가는 과정이 수월합니다. 또한, 독일어로 되어 있는 거주 등록 서류 작성도 도와주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버디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의 SNU Buddy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저의 경우, 버디 2명과 교환학생 4명이 한 팀을 이루었으며, 한 학기 동안 파티, 공연 등 다양한 행사에 초대받아 교환학생으로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버디뿐만 아니라 버디의 친구들까지 약 20명이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고,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SN 가입을 추천합니다.



3. 학업

- German Intensive Course

이 수업은 학기 시작 전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어학 과정으로, 기초적인 독일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은 되지 않지만, 현지 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Uni Graz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친구를 사귄 기회가 많았고, 기초 회화를 익혀 일상생활에서 보다 자신감 있게 독일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수업은 주 5일 동안 오전 9시에 시작하여 3시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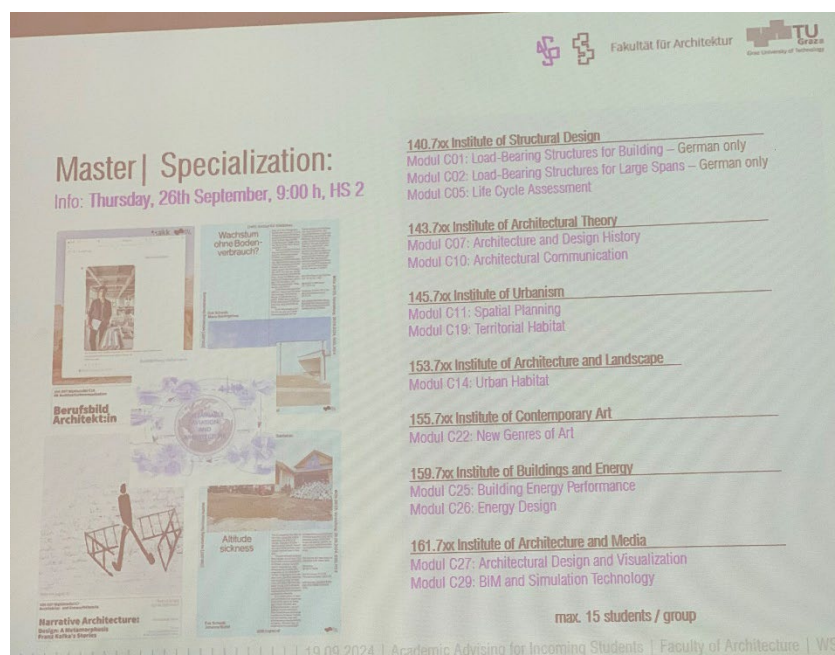


- BIM & Simulation Technology

그라츠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학사 과정이 3년, 석사 과정이 2년이기 때문에 3학년 이상이라면 석사 과정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4학년 2학기였기 때문에 석사 과정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7개의 연구소(Institute)에서 13개의 전문 과정(Specialization) 수업이 제공되었습니다. 전문 과정 수업은 하루 종일 진행되는 형태로, 제가 들은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1 ECTS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BIM 수업은 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그라츠의 특정 사이트를 분석하고, 해당 부지에 설계한 건물의 에너지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학기 마지막에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활용한 렌더링 기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있어 Revit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수업에 참여했지만, 디자인과 렌더링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다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팀원들이 디자인을 훌륭하게 맡아주었고, 저는 에너지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Solar Analysis, Embodied Carbon, Cost, Energy Use Intensity 등 Revit의 다양한 에너지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IKK라는 회사를 방문하여 실무에서 BIM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울 기회도 있었습니다. IKK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국가들이 연합한 회사로, 철도, 댐,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BIM을 활용하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배우며, 실무 적용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 생활

- 날씨

가을 학기의 유럽은 다소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10월까지의 맑고 파란 하늘이 이어지지만, 11월부터는 해가 잘 뜨지 않고 하늘이 대부분 회색빛을 띠니다. 그렇다고 날씨가 극도로 춥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아니지만, 흐린 날이 많아 기운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추운 시기에는 패딩이 필요하지만, 서울만큼 추운 것은 아니어서 롱패딩까지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9~10월에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과 선글라스가 필수이며, 유럽에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아 개인적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통신

Spusu라는 통신사에서는 6개월 무료 체험 후 요금을 결제하는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지 전화번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을 여행할 때 별도로 유심을 구매할 필요 없이 데이터 로밍을 통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 편의 시설

오스트리아의 마트는 크게 Billa, Lidl, Spar 세 종류가 있습니다. Steyrergasse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Lidl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Lidl은 Billa와 Spar와 다르게 Bio(유기농)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마트의 크기도 큼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해산물을 구하기 어렵고(냉동 새우와 냉동 해물믹스만 있음) 육류가 한국보다 저렴하여 추천할 만합니다. 특히 삼겹살(Schweinebauch), 닭날개(Hühnerflügel), 닭다리(Hühnerschenkel), 소고기 다짐육(Rinderhackfleisch)은 구이, 찜, 조림, 볼로네제 소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많이 구매해 먹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맛있게 먹은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Lidl에서만 판매하는 우유로, 한국 우유보다도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몬맛 맥주로, 이슬톡톡과 비슷한 포지션에 탄산이 강하고 은은한 레몬향이 달달하여 좋았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와인도 유명하며, 계절마다 마시는 와인이 다릅니다. 포도 수확이 끝난 후, 품질이 좋지 않은 포도로 만든 값싼 와인이 Stürm인데, 굉장히 달고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숙성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마트에서 패트병에서 넘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겨울에 마시는 Glühwein으로, 크리스마스마켓에서 한 잔(200ml)에 3~4유로, 보증금 5유로 정도지만, 마트에서는 1L 한 병을 2유로 내외로 구할 수 있어 집에서 계피와 함께 데워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크리스마스마켓의 보증금은 머그컵에 대한 비용으로, 컵이 무척 귀엽기 때문에 가져와도 됩니다. 예쁜 머그컵을 찾아

크리스마스마켓을 돌아다니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5. 마치며

영어 하나만 바라보고 출발한 유럽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익숙한 환경 안에서만 삶을 계획하며 해외를 단순한 여행지로만 여겼지만, 현지 회사를 방문하고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을 구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에게도 생각보다 폭넓은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목표로 했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 기쁜 마음도 큼니다. 6개월간의 짧은 교환학생 생활이 앞으로 제 인생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국제협력실과 공대 교육연구재단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